

김호 선생

(14)

김호 선생의 원명은, 김 끈산판지진, 은 1912년 6월 25일에 원풍변강 영해주 하산구역에서 탄생하시었다

김호 선생은 1930년에 고향도시 근라쓰기노에서 사전을 필하시고 1934년에 원풍변강 국영종합대학 경제학부를 필하였다.

1937년에 강제이주로 인하여 까자흐공화국에 싯여 뉘으며 1937년 북해 띠디꾸르간주 무스도베시에서 조인위원회 재정부장으로 1946년까지 일하였다.

1946년에 북한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국제공산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귀국 되었다.

북한에 도착하여 1946년부터 1955년 말까지 소비에트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에서 일하시고, 1955년 말 부터 1957초까지 도량변제기 관리 중앙위원회 위원장 직책에서 일하시었다. 그후 1957년 말까지 산업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에 계시고 1958년 초 부터 1962년 말까지 공화국 중앙은행 부총재 직책에서 일하시었다.

1962년 말에 소련에 귀국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호선생은 카지흐공화국 알타이아리에 파견하여 출장을 도우하였다.

노년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시된 파견된 김호 선생은 알타이에 도착하여 사해로 (하렐하) 근처 가정성원들의 직업 취직문제 학업계속에 대한 문제등을 해결한 후 김호 선생은 소리조합 알타이 도위원회 직책에 임명되어 1972년까지 무려 십년간이나 일하시였다.

김호 선생은 1972년에 만 60세가 되자 최근으로 공화국 공훈 연금생 생활에 넘어가시였다.

김호 선생은 북한에서 일하시시 국가 훈장으로 "국기훈장" 2급, 3급을 수여받았으며 소련정부로부터 여러 개의 메달들을 수여 받았다.

2000년 1월 28일 하필리에서,